

科學技術學會活動略史

(11)

韓國氣象學會 篇

1. 序 言

6.25動亂 후 당시 中央觀象台長이었던 李源喆博士(1986~1962)는 氣象學의 學術의 發展을 促進시키려는 目的으로 우선 中央觀象台職員만으로 韓國氣象學會를 創設, 그 初代會長이 되었다. 그러나 所屬 課長級 職員으로 하여금 學會 任員으로 한다는 정도의 口頭決定을 하였을 뿐 職員의 轉勤, 退職등으로 會員의 移動이 심해서 學會의 會則 作成도 하지 못하였거니와 學會다운 活動도 하지 못하였다.

그후 第2代 中央觀象台長이었던 鞠採表博士(1906~1968)는 中央觀象台職員만으로 學會를 構成할 수 없다는 見解에서 事實上 有名無實 하던 1日學會의 發展의 解散을 宣言하고 大學·空軍·海軍등 各界의 氣象人을 總網羅할 意圖下에 學會創立準備委員會를 構成하였다. 몇차례의 會說를 거쳐 1963年 12月30日 마침내 國內 汎氣象人이 動員된 韓國氣象學會創立總會가 當時 鍾路區東崇洞所在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構內에서 開催되었으며, 初代會長으로 鞠採表博士가 被選되었다.

그러나 學會初創期當時의 任員構成은 大學이나 研究機關을 中心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實務機關인 中央觀象台와 空軍氣象戰隊에 置重하는 수 밖에 다른 道理가 없었던 것이 事實이며, 學會誌 創刊號發行도 1964年9日13日. 서울近郊를 통과한 태풍Tornado가 폭접近傍을 強打함으로써 會員들의 關心을 集中시켰으며 곧 中央觀象

台(鞠採表), 大學(金聖三) 및 空軍(李鍾京)의 共同研究調查로 이루어진 다음 初産의 産苦를 치룬 것이다.

즉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는 地理的條件이 懸絶하게 다른 우리나라에 發生한 Tornado에 대해서도 미국에서의 Tornado 予報則과 Tornado에 관한 각종 理論 및 criteria가 大體의 으로 잘 適用됨을 알 수 있게한 Seoul Tornado는 約 20km를 東進한 다음 消滅하였으나 그 被害地域의 幅은 150~300m에 달했던 것이다.

1965년 3월에 發刊된 韓國氣象學會誌 第1卷 第1号는 研究報文 5編, 解說 1篇 및 研究노트 2篇등 48페이지에 달하는 貧弱한 內容이었지만, 會員의 學會活動을 鼓吹시키기에는 適時打的 役割을 한 것으로 評價받았던 것으로서 특히 우리나라固有의 特殊局地氣象現象에 대한 學術의 研究調查 潛在能을 示唆한 當該分野 學術活動의 矯矢의 位置를 가다듬은 셈이다.

2. 學會誌發刊

上述한 바 創刊號가 發刊된 以來 1978年末까지 韓國氣象學會誌에 収録된 報文을 統計의 으로 살펴보면, 大氣科學部門이 28篇, 綜觀氣象學(Synoptic Meteorology)이 28篇, 氣候學이 22篇, 그리고 大氣力學 및 海洋氣象學이 각각 3편씩이며 水文氣象學(Hydrometeorology)이 2편, 氣象測器 및 地震學이 각 1편, 計 93篇이며 解說(review article) 7편을 합하면 꼭 100篇에

달하고 있으나 国内氣象学分野의 學術活動이 아직도 成熟期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와같은 現實은 正會員 105名, 準會員 5명으로 構成되어 있는 現學會 構成人員中 약 50명 정도의 회원만이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現實의 與件과 學會運營에 所要되는 諸經費의 安定確保가 어려운 社會的背景에도 遠因이 있다고 보아진다.

즉 報文14篇을 發表한 金聖三教授를 비롯해서 2名(鄭昌熙, 曹喜九 教授)이 각각 7篇, 2名(孫亨珍·閔庚德)이 각각 6篇, 3名(文勝義, 金光植, 金鎭冕)이 각각 4篇, 7名(李炳高, 鄭成浩, 朴容大, 盧在植, 郭宗欽, 李英馥, 韓英鎬)이 3篇 그리고 10名이 2篇씩 計 25名이 2篇以上씩 發表하였으며 더하여 1篇만 發表한 會員이 25名이 되므로서 총 50名이 學會誌에 報文을 發表한 셈이 되는데, 1篇만 發表한 사람중 過半以上(약 14名)이 他職種으로 轉職 하였거나 外國으로 빠져나간 事實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氣象学分野에 대한 社會의 背景이 얼마나 貧困한가를 端的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創刊號以來 1968년까지는 每年 1回씩 發刊하고 1969년부터는 年 2회씩 發刊키로 하였으나, 이것마저 뜻대로 되지 못하고 1969年, 1970年, 1971年 및 1973年만 2회 發刊함으로써 1978年末現在 第14卷 1號까지 通卷 18號를 發刊하였을 뿐이다.

3. 研究發表 및 學術講演會 開催

學會創立以來 延23회에 걸쳐 100편에 달하는 研究論文發表와 招請學術講演會를 開催함으로써 初創期의 한국 氣象學發展·育成에 寄與한 바 크다고 보며 學會內에 設置한(1970年度) 翻譯委員會는 S. Petterson 原著 “一般氣象學”을 翻譯,

出版·普及함으로써 大學教材로서 널리 活用케 하였으며, “韓國의 氣候(一志社發行)”도 펴내는 한편 “國內地域別 統計的 氣象資料作成事業(工業振興庁 工業規格과 관련된 事業)”을 完成, 高度의 都市化發展 및 重化學工業團地의 擴張·增設로 인한 產業活動의 平面擴大가 國土의 狹小性이라는 우리나라 特有的 胞弱點에 미치는 壓力 및 建設計劃의 高層化·地下化 등 垂直的인 伸張에 對備한 產業氣象學的 統計資料를 提示하였다.

4. 歷代 學會會長 및 編輯委員會長의 名單

歷代韓國氣象學會 會長

1963. 12 ~ 1968. 4	鞠採表博士(中央觀象台長)
1968. 4 ~ 1968. 6	盧在植博士(原子力研究所室長)
1968. 6 ~ 1970. 4	金鎭冕部長(中央觀象台)
1970. 4 ~ 1972. 4	金聖三教授(서울大)
1972. 4 ~ 1974. 4	鄭昌熙教授(서울大)
1974. 4 ~ 1976. 4	徐相文部長(中央觀象台)
1976. 4 ~ 1978. 4	金光植部長(中央觀象台)
1978. 4 ~	盧在植博士(韓國原子力研究所環境部長)

歷代編輯委員會長

1963-1967	金聖三教授(서울大)
1967-1969	金光植*部長(中央觀象台)
1969-1971	曹喜九*教授(延世大)
1972-1974	鄭昌熙教授(서울大)
1974-1978	成樂道博士(洪陵機械)
1978-	孫亨珍所長(氣象研究所)

但 ※ 표는 會則의 一時改定으로 編輯幹事의 資格으로 代行한 경우임.